



## 남을 도울 큰 기회는 자주 오지 않지만 작은 기회는 날마다 우리 곁에 있습니다

2011년 3월부터 시작된 시리아 내전으로 인하여  
사망자 10만 명, 국내 피난민 425만 명, 국외 피난민 200만 명, 이중 여성과 아이들이 75%

최악의 인도적 위기 상황에 대해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지난 9월 7일을 시리아와 전 세계의 평화를 위한 기도와 단식의 날로 선포하시고 선의를 지닌 모든 이들의 동참을 촉구하시면서, “평화는 인간성의 밑바탕에 깔린 것이어서 모든 장벽을 극복할 수 있다”며 “시리아와 중동지역 및 분쟁을 겪는 전 세계 모든 지역의 평화를 위해 함께 기원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2011년 3월부터 시작된 시리아 내전으로 인하여 현재 사망자만 10만명에 이르며, 고향을 떠나 피난민이 된 시리아 인구가 625만 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75%가 여성과 아이들이며, 4세 미만의 영아 비율이 20%에 이릅니다. 우리도 전쟁으로 고통 받고 슬픔에 젖어 있는 시리아 형제 자매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로서 사랑의 손길을 나누어 주어야 하겠습니다. (관련내용 2면에 계속)

### 시리아 난민 돕기 긴급구호 계좌안내

- 입금계좌 우리은행 1005-785-119119 ■ 예금주 (재)천주교한마음한몸운동본부
- 후원문의 02.727.2267 ■ ARS 060.700.1117 (한 통화당 3,000원)



스마트폰으로  
스캔하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시리아에 평화와 희망의 등불을”

## 한마음한몸운동본부 시리아 긴급구호금 5만달러 우선 지원



**지난** 2011년 3월, 시민들의 민주화 시위에서 촉발된 시리아 내전. 이후 2년 6개월이 지나도록 정부와 반정부군, 이슬람 종파 시아파와 수니파의 분쟁으로 이어지며 확산 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내전이 지속되면서 피해도 늘어 현재까지 사망자만 10만 명을 넘어섰으며, 고향을 떠나 피난민이 된 시리아 인구가 625만명에 달합니다. 보다 우려스러운 것은 전쟁이 지속될수록 무고한 어린이들의 희생도 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유엔인도주의업무조정국(UN-OCHA)은 최근 난민으로 공식 등록된 시리아의 어린이 수가 100만 명을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체 시리아 난민 중 절반을 차지하는 수치입니다.

또 어린이 난민 중 11세 미만의 아동이 77만 명에 달하며, 자국 내에서 고향을 떠나 피난살이를 하고 있는 어린이도 200만 명에 이른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난민살이를 하고 있는 어린이들은 부상, 공포, 스트레스와 같은 피해뿐만 아니라 강제노동, 인신매매, 성폭행 위험에도 그대로 노출돼있어 우려를 더하고 있습니다.

시리아 카리타스 의장 오도 주교는 “전쟁으로 인해 시리아의 모든 사람들이 가난해졌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는 모든 사람들이 배고픔 없이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중산층조차 빈곤층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라며 국제사회의 손길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마음한몸운동본부는 9월 레바논 카리타스를 통해 시리아 국내외 난민 긴급구호 및 전쟁피해 복구를 위해 긴급지원 자금 미화 50,000 달러를 선지원 조치를 하였고, 지속적인 시리아 내전 피해 긴급구호를 위하여 특별 모금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모금된 후원금은 매우 추운 베카 밸리 지역 난민들에게 800여개의 텐트와 겨울대비 방한복, 담요, 난방용 기름 등을 제공하게 됩니다. 또 이동 진료소를 통하여 여성과 아동들에게 기본 의료 지원을 하게 됩니다.

전쟁의 포화속에 고통받고 있는 시리아 형제자매들이 다시 평화를 회복하고 평안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50만원이면 시리아 난민 10명을 살리는 긴급구호 의료키트 지원이 가능합니다.

30만원이면 시리아 난민 아동 10명을 살리는 긴급구호 위생키트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10만원이면 시리아 난민 5명에게 취침용 매트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5만원이면 시리아 난민 여성 2명에게 방한용 자켓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3만원이면 시리아 난민 8명에게 따뜻한 담요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 카리타스는 전세계 가톨릭교회가 사랑 실천과 사회정의 구현에 헌신하도록 조직된 기구로 한국을 비롯하여 총 193개 나라가 회원국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UN협의기구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 시리아 난민 돕기 긴급구호 계좌안내

- 입금계좌 우리은행 1005-785-119119 ■ 예금주 (재)천주교한마음한몸운동본부
- 후원문의 02.727.2267 ■ ARS 060.700.1117 (한 통화당 3,000원)



스마트폰으로  
스캔하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한마음한몸운동본부 지구시민교육 『피앗누리 17기』 모집



지구촌과 나를 연결하는 아주 특별한 경험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피앗누리는 지구촌의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한국과 현지 청년들이 자신이 가진 시간, 에너지, 열정을 바탕으로 전 지구적 공동문제를 해결하는데 참여하여 다양한 지역문화를 이해하고 교류함으로써 배움을 얻고 성장할 수 있는 지구시민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전체오리엔테이션, 배움터, 현지활동, 국내체험 및 해단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3년부터 2013년까지 10년째 332명 청년들이 함께하였습니다. 단순한 해외단기자원활동 프로그램이 아닌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므로 전지구적 문제를 고민하여 해결방법 등을 모색하는 지구촌과 나를 연결하는 아주 특별한 경험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모집 및 접수** 10/6(일)~11/10(일) [www.obos.or.kr](http://www.obos.or.kr) 지원서 다운 및 이메일  
([obos.caritasseoul@gmail.com](mailto:obos.caritasseoul@gmail.com)) 접수

**오리엔테이션** 11/23(토) ~ 24(일), 1박 2일 해화동 성령선교수녀회

**배움터** 12/21(토), 1/4(토), 1/11(토), 1/18(토) 명동 가톨릭회관

**현지 활동** 2/4 (화) ~ 2/18(화) 캄보디아 깜뽕꼬 마을 및 반티프리어 장애인 기술학교

**국내체험 및 해단식** 2/21(금) 명동 가톨릭회관

**관련 문의** 02.727.2292 (상세내용은 본부 홈페이지 [www.obos.or.kr](http://www.obos.or.kr) 참조)

## 자살예방활동가 양성교육 기본과정 - 게이트키퍼 교육생 모집

자살을 생각하는 이들의 어려움에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한마음한몸자살예방센터에서는 다음과 같이 교육을 실시합니다. 이번 교육은 캐나다에서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는 게이트키퍼 교육의 하나인 safeTALK 교육으로 이루어집니다.

- **일 시**: 2013년 11월 16일(토) 10시 ~ 13시
- **대 상**: 게이트키퍼 교육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 **신청기간**: 2013년 10월 22일(화) ※ 선착순 30명 마감
- **결과발표**: 2013년 10월 31일 16시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
- **신청방법**: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교육신청서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이메일 제출  
**이메일** [3079@3079.or.kr](mailto:3079@3079.or.kr) **홈페이지** [www.3079.or.kr](http://www.3079.or.kr)
- **문 의**: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서지영 02.318.3079

☞ 게이트키퍼 교육은 자살을 생각하는 주변의 누군가가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전문기관에 연결해주는 역할을 배우는 교육입니다. 본 교육은 safeTALK 수료증이 발급됩니다.

☞ 많은 분들의 관심이 늘어나고 있는 본 교육 프로그램을 알려 드리기 위해 당일 교육과정 중 평화방송TV의 촬영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함께하는 사회사목

##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사형수를 위한 위령미사에 초대합니다. 11월 위령성월을 맞이하여 광탄 나자렛 묘원에서 사형집행으로 숨진 사형수 형제들을 위한 위령미사 및 연도가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 뜻 깊은 자리에 초대합니다.

- 일 시 2013년 11월 4일(월) 오전 9시 20분 가톨릭화관 후문 출발
- 장 소 광탄 나자렛 묘원
- 집 수 10월 25일(금) 마감
- 회 비 10,000원
- 준비물 미사 도구, 편한 신발, 물
- 문 의 02)921-5094

## “해밀”가족 모임 안내

범죄로 인해서 가족을 잃으신 분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모임을 한 달에 한 번 함께 합니다.

- 문 의 02)921-5093

##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가난 때문에 학업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을 위한 ‘한가족장학회’

본회의 한가족장학회가 최근 장학금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가난 속에서 학업을 포기할 수도 있는 안타까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사랑을 기다립니다.

- 문 의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02)727-2238

## 김장나눔행사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에서는 서울대교구 각 본당 내 무의탁 어르신, 소년소녀가장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과 쌀과 김치를 나눌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문 의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02)727-2239

## 가톨릭레드리본

## HIV/AIDS의 오해와 사실! PART 2

Q.HIV감염인의 혈액이나 체액이 피부에 닿아도 HIV에 감염되나요?

A.그렇지 않습니다. HIV감염인의 혈액이나 체액이 상처가 없는 피부에 닿는다면 HIV에 감염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작은 실천과 지식이 HIV/AIDS 감염인들의 삶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 문 의 02)753-2037, 8 www.redribbon.kr



온라인으로  
장기기증  
서약하기

www.obos3042.or.kr  
참여문의  
1599-생명살이(3042)



facebook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www.facebook.com/oboscorea  
행사 및 이벤트 등 다양한 소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한마음한몸운동본부 나눔가게·나눔기업 (2013. 8 ~ 10)

가게의 규모와 종류는 다르지만 행복나눔을 실천하겠다는 마음만은 똑같은 나눔가게·기업 신청시 예쁘게 디자인된 현판과 전용 저금통, 안내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카운터 및 입구에 나눔현판을 부착하시면 나눔의 의미는 더욱 빛날 것입니다. ※ 한마음한몸운동본부 나눔가게·기업이 되시려면 소정의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 67호점 천안 서북구 성현동 우성가족식품 영농조합법인
- 68호점 안산 단원구 원곡동 해피텔레콤 안산점
- 69호점 서울 용산구 청파2가동 광명사진관
- 70호점 서울 관악구 성현동 누리애헤어
- 71호점 부산 북구 덕천동 The Sara
- 72호점 천안 원성동 파리프송제과점
- 73호점 서울 금천구 가산동 (주)아침정보기술

- 74호점 서울 양천구 목4동 안경매·저서복종점
- 75호점 서울 강서구 양천로 아름다운재가센터
- 76호점 경기 성남시 분당구 해남로 아람목원교회
- 77호점 경남 함안군 칠원면 타이머트/세차장
- 78호점 서울 마포구 대흥동 베스트스토어
- 79호점 서울 구로구 구로동 성원 부동산
- 80호점 서울 양천구 신정7동 참살이돈타령

- 81호점 서울 서대문구 염천동 독립문치과
- 82호점 울 강동구 암사3동 사계절피부샵
- 83호점 서울 종로구 인의동 보나텔
- 84호점 경기 의정부시 민락동 연세내과의원
- 85호점 서울 송파구 잠실동 농협안심축산물잠실점
- 86호점 경기 화성시 북양동 쓰리다얌디
- 87호점 충북 청주시 상당구 매곡동 우연치킨닭강정

- 88호점 부산 해운대구 채송2동 림프코 장덕극밥
- 89호점 서울 관악구 독산3동 만송헬스탕
- 90호점 경기 화성시 동탄동 김지영헤어
- 91호점 서울 서초구 양재동 별나환집
- 92호점 충남 아산시 신창면 읍내리 JARED LUTHER 이학원
- 93호점 경남 김해시 외동 이가네우미머리관
- 94호점 서울 중랑구 연목5동 다연마트

※ 현재 약 200여 예비 나눔가게·기업이 후원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참여문의 | 한마음한몸운동본부 커뮤니케이션팀 02.727.2263

▲ 52,846명

(2013년  
10월 8일  
현재)

● 자동이체신청 02)774-3488 ● ARS 060-700-1117 ● 인터넷참여 http://www.obos.or.kr

● 후원계좌 ※ 예금주 : (재)천주교한마음한몸운동본부

● 지로 7522277

우리는행 454-005324-13-001 신한은행 140-001-982286 국민은행 083-01-0309-453  
농협 386-01-015833 화원은행 061-22-03709-4 하나은행 850-910006-09104



## 생애첫기부로 따뜻한 세상 만듭시다!

생애첫기부는 사랑스럽고 소중한 아이의 기념일에 잔치를 열어주는 대신 그 비용을 고스란히 아프리카·아시아의 빈곤한 친구들과 국내의 백혈병·난치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또래 친구들에게 전달하는 행복한 나눔입니다.



1142번째  
아이인 레아의  
생일 기부

- 이종민 세라피노 (2012.10.12생父 이강표/母 한규진, 100만원(백혈병·난치병 아동 및 청소년 돕기)
- 손재윤 (2013.06.16생父 손승현/母 공성주, 50만원(백혈병·난치병 아동 및 청소년 돕기)
- 은서은 (2012.08.04생父 은기범/母 김미란, 10만원(백혈병·난치병 아동 및 청소년 돕기)
- 정선우 (2012.07.31생父 정진석/母 이은연, 27만원(백혈병·난치병 아동 및 청소년 돕기)
- 주혜원 (2012.09.11생父 주재현/母 신자선, 365천원(백혈병·난치병 아동 및 청소년 돕기)
- 이정정 안드레아 (2012.09.16생父 이만재/母 김인희, 300만원(백혈병·난치병 아동 및 청소년 돕기)
- 고은혜 (2013.05.19생父 고재우/母 김아수, 20만원(백혈병·난치병 아동 및 청소년 돕기)
- 이지호 필리나 (2012.09.06생父 이종성/母 이정민, 45만원(백혈병·난치병 아동 및 청소년 돕기)
- 엄서준 (2013.06.08생父 엄대웅/母 김해성, 100만원(지구촌 빈곤 아동 및 청소년 돕기)
- 조성연 (2011.09.06생父 조남형/母 김미옥, 10만원(백혈병·난치병 아동 및 청소년 돕기)
- 박지우 (2013.07.12생父 박동현/母 정미영, 10만원(백혈병·난치병 아동 및 청소년 돕기)
- 김재준 이나나 (2012.09.26생父 공진표/母 박지선, 100만원(백혈병·난치병 아동 및 청소년 돕기)
- 박승철리나 (2012.07.24생父 박봉철/母 박지현, 50만원(백혈병·난치병 아동 및 청소년 돕기)
- 조인희 가브리엘라 (2010.12.26생父 조현성/母

- 김유영, 10만원(지구촌 빈곤 아동 및 청소년 돕기)
- 조수민 미카엘라 (2012.08.05생父 조현성/母 김유영, 10만원(백혈병·난치병 아동 및 청소년 돕기)
- 이서준 (2012.09.28생父 이주원/母 이승은, 100만원(백혈병·난치병 아동 및 청소년 돕기)
- 이지우 (2012.07.28생父 이상영/母 최송이, 50만원(백혈병·난치병 아동 및 청소년 돕기)
- 강지호 레오 (2008.01.17생父 강석성/母 이지향, 30만원(백혈병·난치병 아동 및 청소년 돕기)
- 강지훈 랄프 (2012.09.24생父 강석성/母 이지향, 30만원(백혈병·난치병 아동 및 청소년 돕기)
- 윤현서 (2013.06.04생父 윤종일/母 권은경, 10만원(지구촌 빈곤 아동 및 청소년 돕기)
- 박지연 리파엘라 (2012.02.23생父 박진형/母 조유미, 100만원(백혈병·난치병 아동 및 청소년 돕기)
- 권성우 (2012.10.02생父 권현돈/母 윤옥련, 102만원(백혈병·난치병 아동 및 청소년 돕기)
- 김호정 대데레사 (2012.10.11생父 김수원/母 김미선, 50만원(백혈병·난치병 아동 및 청소년 돕기)
- 이소현 소피아 (2012.08.30생父 이자훈/母 홍정숙, 10만원(지구촌 빈곤 아동 및 청소년 돕기)
- 문지호 사도요한 (2012.09.27생父 문성영/母 박지현, 100만원(백혈병·난치병 아동 및 청소년 돕기)
- 윤나리 가브리엘라 (2012.09.29생父 윤병훈/母 박혜경, 365천원(백혈병·난치병 아동 및 청소년 돕기)
- 김수원 (2012.07.04생父 김도훈/母 김진희, 100만원(지구촌 빈곤 아동 및 청소년 돕기)
- 신지섭 (2013.07.01생父 신동일/母 박수민, 100만

- 원(백혈병·난치병 & 지구촌 빈곤 아동 및 청소년 돕기)
- 나혜원 마리스텔라 (2010.01.02생父 나종욱/母 진은미, 20만원(지구촌 빈곤 아동 및 청소년 돕기)
- 나혜율 (2012.09.07생父 나종욱/母 진은미, 30만원(백혈병·난치병 아동 및 청소년 돕기)
- 연재현 플로라 (2012.10.23생父 연상희/母 김미연, 30만원(백혈병·난치병 아동 및 청소년 돕기)
- 아이인 레아 (2011.10.30생父 이종민/母 이지훈, 20만원(백혈병·난치병 아동 및 청소년 돕기)
- 김광 (2012.10.09생父 김마루/母 이현정, 50만원(지구촌 빈곤 아동 및 청소년 돕기)
- 이주형 다니엘 (2012.07.24생父 이은은/母 이나영, 10만원(지구촌 빈곤 아동 및 청소년 돕기)
- 김어진 (2012.10.19생父 김정우/母 남해진, 50만원(백혈병·난치병 아동 및 청소년 돕기)
- 고인호 미카엘 (2002.05.03생父 최홍자엘리사, 10만원(지구촌 빈곤 아동 및 청소년 돕기)
- 고윤호 라파엘 (2006.02.06생父 최홍자엘리사, 10만원(지구촌 빈곤 아동 및 청소년 돕기)
- 김가빈 (2013.09.05생父 김태훈/母 허송이, 30만원(백혈병·난치병 아동 및 청소년 돕기)
- 심상준 레오 (2007.06.06생父 심주원/母 김은주, 30만원(백혈병·난치병 아동 및 청소년 돕기)
- 신재아 (2012.10.17생父 신부영/母 변정희, 100만원(백혈병·난치병 아동 및 청소년 돕기)
- 김서윤 데레사 (2012.09.22생父 김도현/母 홍태이, 100만원(백혈병·난치병 아동 및 청소년 돕기)
- 하나 (출산예정일 2014.04.30생父 김현경/母

- 리나, 10만원(지구촌 빈곤 아동 및 청소년 돕기)
- 두리 (출산예정일 2014.04.30생父 김현경/母 리나, 10만원(지구촌 빈곤 아동 및 청소년 돕기)
- 이서준 (2012.10.15생父 이승훈/母 박경진, 50만원(지구촌 빈곤 아동 및 청소년 돕기)
- 윤수환 프란치스코 (2013.07.02생父 윤정호/母 양민, 100만원(지구촌 빈곤 아동 및 청소년 돕기)
- 이한솔 디모테오 (2012.10.19생父 이진원/母 이나리, 50만원(백혈병·난치병 아동 및 청소년 돕기)
- 김은성 가브리엘 (2013.07.09생父 서준민/母 하천타, 10만원(백혈병·난치병 아동 및 청소년 돕기)
- 이주호 (2012.09.17생父 이진현/母 이은주, 100만원(백혈병·난치병 아동 및 청소년 돕기)
- 백주하 베네딕토 (2004.08.03생父 백인호/母 최경선, 10만원(백혈병·난치병 아동 및 청소년 돕기)
- 이세린 (2012.09.21생父 이상진/母 임혜영), 30만원(백혈병·난치병 아동 및 청소년 돕기)
- 이도경 다니엘 (2011.10.10생父 이민재/母 이수현, 100만원(백혈병·난치병 아동 및 청소년 돕기)
- 김은재 테레사 (2012.04.19생父 김현호/母 김성희, 30만원(백혈병·난치병 아동 및 청소년 돕기)
- 최윤호 요한 (2013.05.31생父 최승희/母 김유경, 100만원(백혈병·난치병 아동 및 청소년 돕기)
- 남경민 (2012.11.29생父 최홍철/母 마리아, 500만원(지구촌 빈곤 아동 및 청소년 돕기)
- 최은승 (2011.09.05생父 최홍준/母 이화진, 10만원(백혈병·난치병 아동 및 청소년 돕기)

- 유지연 크리스티나 (2012.09.15생父 유진수/母 이미정, 200만원(지구촌 빈곤 아동 및 청소년 돕기)
- 김이현 (2011.09.21생父 김수형/母 홍은정, 100만원(백혈병·난치병 아동 및 청소년 돕기)
- 천수정 로사 (2013.04.06생父 천정우/母 강재민, 10만원(백혈병·난치병 아동 및 청소년 돕기)
- 김지우 도미니코 (2011.08.31생父 김은하/母 장양원, 10만원(백혈병·난치병 아동 및 청소년 돕기)
- 김다을 (2012.10.19생父 김진호/母 이샐비, 20만원(백혈병·난치병 아동 및 청소년 돕기)
- 이승현 (2012.10.04생父 이도성/母 강신영, 15만원(백혈병·난치병 아동 및 청소년 돕기)
- 나소을 세라피나 (2010.08.10생父 나상우/母 우상희, 30만원(지구촌 빈곤 아동 및 청소년 돕기)
- 최진현 프란치스코 (2010.09.10생父 최범수/母 김미숙, 10만원(백혈병·난치병 아동 및 청소년 돕기)
- 천유정 안젤라 (2009.10.19생父 천정우/母 강재민, 10만원(백혈병·난치병 아동 및 청소년 돕기)
- 이승민 베드로 다리아노 (2011.02.21생父 천정우/母 강재민, 10만원(백혈병·난치병 아동 및 청소년 돕기)
- 이종대운 부부의 기부
- 정우용 사도요한, 임현숙 로사리아 10만원 (백혈병·난치병 아동 및 청소년 돕기)